

환자 내쫓는 전남대병원

심장초음파실 의사들 “특진 못해 급여 낮다” 고의로 검사 줄여

“심장초음파요? 우리 병원에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병원에서 찍어 오세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모(46)씨는 최근 전남대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진료를 위해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가 필요하니 일반병원에서 검사결과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담당의사는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찍으려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니, 다른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오라고 덧붙였다.

개인병원(1차)과 일반 종합병원(2차)을 거쳐 온 환자를 치료해야 할 3차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이 오히려 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내려보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당일 또는 다음날 가능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만 3개월이

성과급 지급 요구 병원측 거부에 반발

하루 50명 보던 환자 10~20명으로 줄어

“다른 병원 가서 찍어오시오” 황당 요구

라는 ‘세월’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

환자가 많아져서 아니다. 전남대병원 심장초음파실이 일부러 심장초음파 검사를 평소 50명 정도에서 10~20명선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는 심장초음파실 일부 교수가 자신들에게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특진’분야를 신설하는 등 성과급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비슷한 경력을 가진 심장초음파실 교수와 특진이 있는 다른 과 교수의 월 급여를 비교한 결과, 특진이 있는

분야의 교수 수입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료보험 지원없이 진료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심장초음파와 같은 경우는 특진이 없다.

전남대병원 심장초음파실의 B교수는 최근 병원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심장초음파실 교수는 특진이냐 성과급이 없는 등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약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엔 타

병원에 검사를 의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심장 관련 분야 내과나 노인질환, 교통사고 등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분야의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교수는 “병원과 의사를 믿고 찾아왔다가 다른 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찍어 오라는 말에 격분해 되돌아간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장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전남대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대학병원을 찾는 것은 수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며 “심장병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이 심장초음파를 다른 병원에서 찍어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난했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수해복구 나선 31사단 장병들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13일 장성군 남면 행정리 검정마을에서 최근 광주·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 때 논으로 유입된 토사물을 제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배 무시” 대학생 등 11명이 초등생 못대

실신하자 물 끼얹고 폭행

나주, 3시간 끌고다니며

“선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을 3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한 초·중·고·대학생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13일 동네 후배들과 짜고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대학생 이모(19·1년)군과 고교생 윤모(16·1년)군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에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중학교와 폐가 등지에서 초등학생 임모(12·6년)군을 중학생 8명, 초등학생 1명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 인 이들은 임군을 컨테이너와 폐가, 모 중학교 잔디밭 등으로 3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주먹과 둔기로 때렸으며, 임군이 의식을 잃자 물을 끼얹고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군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군 등이 평소 자신들의 말을 무시해온 임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임군을 불러낸 뒤 집단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군과 윤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촉보소년)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열기자 srchoi@

‘성추행 한달새 4건’ 광주 남구 여성들

“일찍 귀가... 밤 외출 못해요”

최근 한 달새 광주시 남구 진월동과 주월동 일대 4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성추행이 발생한 장소가 반경 약 1.5km안에 집중된 데다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크다.

지난 12일 밤 9시40분께 광주

폭행을 당한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진월동 주택가에서 D(여·23)씨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끌려갈 뻔 한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주월동과 진월동에 사는 여성들은 심야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한 4건의 성추행·폭행 사건은 반경 1.5km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유사 사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회사원 정모(여·26·진월동)씨는 “연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한 뒤로는 가끔적이면 일찍 귀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애꿎은 남성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직장 골목길에서 앞서가던 여성들로부터 괴한(?)으로 의심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진월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45)씨는 “계속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손님들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하루 빨리 범인을 잡아주면 주민들의 불안감도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의사에 성추행 당했다”

여중생, 경찰에 고소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중생이 진료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여중생 A(15)양이 광주 모 병원 진료 의사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A양의 부모가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양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일 진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딸의 손·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악수를 거절해)뺨을 얻어맞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은 “진료에 두려움을 갖는 환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었는데, 의도와 다르게 환자가 느낀 것 같다”며 “성추행은 물론(A양을)때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072) 김중두



10대들 합숙 폭행 소폭 등 2명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13일 가솔 청소년 2명을 조직에 가입시킨다며 모텔에서 합숙시키고 폭행한 동대문과 행동대원 박모(27·경기도 부천시)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 초께 광주시 서구 양동 한 모텔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조모(17)군 등 2명에게 “서울에서 조직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복귀 신안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한 달간 합숙시키고 돈기로 허락하고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서울에서 지난해 말부터 폭행과 사기로 수배돼 광주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나이트 댄서男 ‘가짜 성기’ 노출 무죄

성인 나이트 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가짜 성기’를 노출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합소2부(이윤희 부장판사)는 13일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재판부는 “28세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총 7분 중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했다. 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는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전자발찌 소급 대상자 6916명

16일부터 개정법 시행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에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려고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총 69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출소자는 3739명이고 출소일박자(6개월 내 출소)는 446명, 출소예정자(6개월 후 출소)는 2731명이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群)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지난주 재경지역 성범죄 전담부장검사 회의에서 마련했으며, 15일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회의에 참가한 한 부장검사는 “가능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되, 담당 가장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수많은 보청기 중에서, 가장 좋은 보청기를 찾으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3) 227-9940
 광주점 (063) 227-9970
 송파점 (063) 227-9970
 송파점 (063) 227-9970
 송파점 (063) 227-9970
 송파점 (063) 227-9970